CONDERI

CONDERI GLOBAL OMNIBUS | 글로벌 옴니버스 | 대외 공개판

AI 붐의 다섯 개 회계:
케이프엑스, 신용, 전력, 노동, 그리고 지배구조

Five Ledgers of the AI Boom:
Capex, Credit, Power, Labour and Governance

이번 호의 편집 방향

세계 6대 매체의 이번 주 분석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회계로 설명합니다. 영국 주간지는 거시 회계(설비투자 대비 GDP 노출)로, 미국 일간지는 지배구조 회계로, 영국 경제지는 신용 회계로, 미국 통신사는 전력과 정치의 회계로, 컨설팅 하우스는 조직의 회계로 같은 주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는 다섯 개의 장부를 나란히 놓고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한국 기업의 2027년 예산에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합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GO-2026-11-15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15. (일) Sunday
권호 Volume	VOL. 2026-11-15 · 글로벌 옴니버스 07호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12 ~ 11. 15
대상 매체 Sources	McKinsey · WSJ · FT · The Economist · Bloomberg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3.6% vs 0.3%
AI 투자(GDP 대비 연평균)와
미국 경제의 직접 노출

895.4십억$
앤트로픽 컴퓨트 약정
(2045년까지, 공모 서류)

117십억$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컴퓨팅 용량 투자

6%
하이퍼스케일러 부채·리스
시가총액 대비 비중

6매체 매트릭스: 같은 주, 다섯 개의 장부

거시·지배구조·신용·전력·조직 — 매체별 프레임과 한국 기업에 닿는 지점

매체	이번 주의 프레임	핵심 숫자	한국 기업에 주는 것
The Economist	거시 회계 — 붕괴는 오지만 금융 재앙은 아니다	AI 투자 GDP 3.6%, 직접 노출 0.3%, 상위 10종목 40%	충격은 주가로 오고 매출은 공급망으로 온다
WSJ	지배구조 회계 — 창업자 이후의 회사	엔비디아 −13%, 사상 첫 이사회 의장, 정치 조사 예고	핵심인물 리스크를 문서화된 승계·승인 체계로 대체
FT	신용 회계 — 첫 공모의 등급	노스스타 630억$(선순위 420억 보증), 투자등급 미확보 가능성	수주잔고와 조달 조건을 분리해 관리
Bloomberg	전력·정치 회계 — 데이터센터가 원가가 되다	MS 1,170억$ 자체 조달, 그리드 비용 전가 규정	전력 계약·허가가 수출 일정의 변수
McKinsey	조직 회계 — 도구가 아니라 설계	개인 생산성 80%, EBIT 37%, 고성과 6%, 재창조 11%	AI 도입을 워크플로 재설계로 측정

+2.51%
S&P500 주간 수익률. 8월 초 이후 최고 — 매체들은 이 상승의 질을 의심했다

5.15%
미 10년물. 2년 +37bp·5년 +33bp와 함께 2025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

1조$
12개월간 미국 주식 순외국인 유입(사상 최초). 붐을 지탱한 자금의 출처

6%
하이퍼스케일러 부채·리스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 — 붐이 자기자본 중심이라는 근거

이번 호의 한 문장

여섯 매체가 공통으로 확인한 것은 **AI 붐이 아직 자기자본으로 조달됐다**는 점이고, 공통으로 경고한 것은 **조달 비용이 오르면 그 자기자본의 할인율이 먼저 바뀐다**는 점입니다. 붕괴의 경로는 부채가 아니라 주가와 발주서입니다.

이번 호가 다루지 않은 것

중국·인도 매체의 시각, 그리고 12월 연준 회의 이후의 정책 반응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각 매체가 인용한 공개 자료를 그대로 옮겼고, 매체 간 수치가 다를 때는 출처를 병기했습니다.

I. The Economist: 붕괴는 예상하되, 금융 재앙은 아니다

AI 투자 GDP 3.6% vs 직접 노출 0.3% — 규모는 역사적이지만 조달은 자기자본 중심이다

거시 회계

11월 14일 영국 주간지의 커버 스토리는 질문을 하나로 좁힙니다. AI 붐이 꺾일 때 그것이 금융 대재앙이 되는가. 결론은 "아니오, 그러나 주가는 크게 흔들린다"입니다. 근거는 세 가지 회계입니다. 첫째, 투자 규모는 2025~2032년 연평균 미국 GDP의 3.6%로 추정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수입 장비(칩)로 나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직접 노출은 GDP의 0.3%에 그칩니다. 둘째, 조달 구조가 자기자본 중심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다섯 곳의 부채와 리스 약정은 장부가의 30%, 시가총액의 6%이고, AI 관련 신용은 비금융부문 대출을 추세선 위로 밀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1873년 철도 붕괴와의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그때는 중앙은행이 없었고 충격에 긴축으로 대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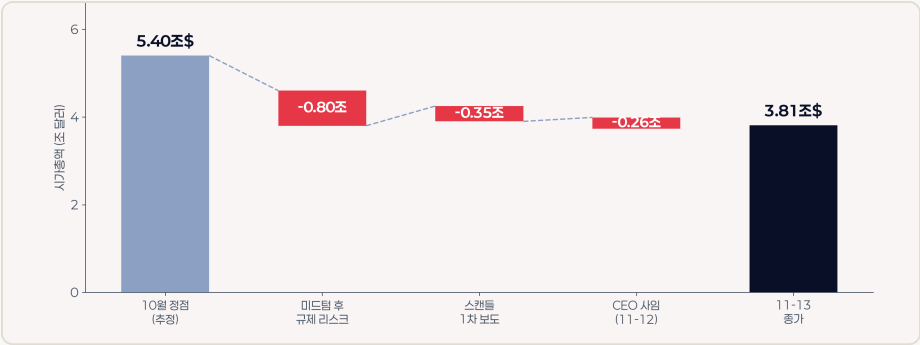
주장	근거 숫자	반대 논거	판정
투자 규모는 역사적이다	GDP 대비 연 3.6%(2025~2032 평균)	철도 붕괴기(1873)보다 규모가 크다	규모는 사실, 비교는 과장
미국 경제 노출은 작다	직접 노출 GDP 0.3%	가계 자산이 주식에 38% 집중	GDP보다 자산가격 경로가 위험
조달은 자기자본 중심	하이퍼스케일러 부채 6%(시총 대비)	네오클라우드는 부채 의존	대형주는 안전, 신생 기업은 취약
금융 재앙 가능성 낮음	AI 신용이 대출 추세를 넘지 않음	사모크레딧·ABS 경로 미검증	조건부 동의
정치적 반작용이 더 크다	미드텀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규제는 지연되면 비용만 늘어남	가장 확실한 변수

거시 판정 붕괴의 가능성과 재앙의 가능성은 다른 질문이다. 기업이 준비할 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다

인용 The Economist, 2026-11-14 커버 스토리 및 브리핑. 수치는 매체가 인용한 공개 추정치입니다.

II. WSJ: 창업자가 떠난 회사의 값을 시장이 다시 매겼다

11-12 사임 이후 일주일 — 임시 CEO·첫 이사회 의장 선임, 반도체 전반으로 번진 재평가



자료: WSJ·로이터·아후파이낸스 11-13 마감 보도 종합. 시가총액은 공표 수치를 바탕으로 한 추정 분해

일자	사건	주가·시총	시장의 해석
11-09~10	스캔들 1차 보도, CEO 해명 메모	주가 반등 시도	"한 회사 문제"로 소화
11-11	미드텀 이후 규제 리스크 부각	반도체 전반 조정	정치 리스크가 밸류에이션에 반영
11-12	CEO 사임, 임시 CEO(재무책임자) 선임, 사상 첫 이사회 의장 선임	−13% 주간 낙폭의 핵심	지배구조 공백을 절차로 대체 시도
11-13	생산자물가·금리 재상승, 반도체 동반 매도	주간 −13%, 시총 약 3.8조$	다음 분기 주문이 어디에 걸렸는가

WSJ이 본 두 개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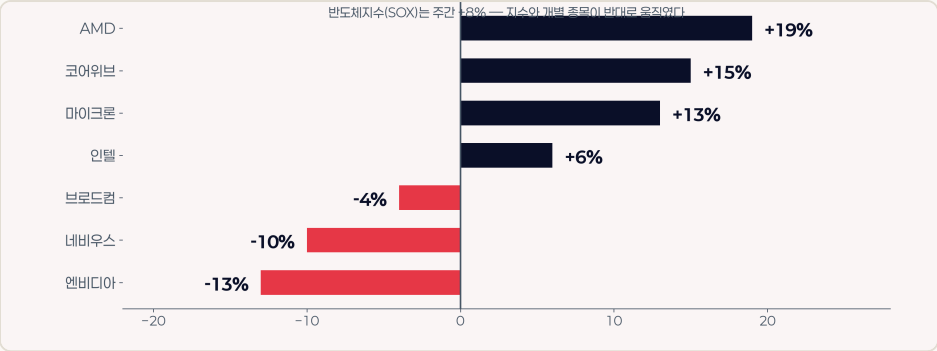
첫째는 승계입니다. "필수불가결한 CEO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배웠다"는 분석과 함께 이사회가 처음으로 의장 직을 신설하고 재무책임자를 임시 CEO로 앉힌 절차가 보도됐습니다. 둘째는 정치입니다. 상무장관의 수출통제 지연 문제, 하원 장악 이후 예고된 조사가 회사 밖 변수로 붙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핵심인물 리스크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①주요 계약의 이중 서명 ②이사회의 이해상충 심의 기록 ③승계·대행 권한 문서화 ④대외 커뮤니케이션의 단일 창구.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III. WSJ·블룸버그: 같은 지수 안에서 +19%와 −13%가 공존했다

수요일 이후 반도체 62개 종목에서 6,500억 달러가 빠졌고, 그중 3개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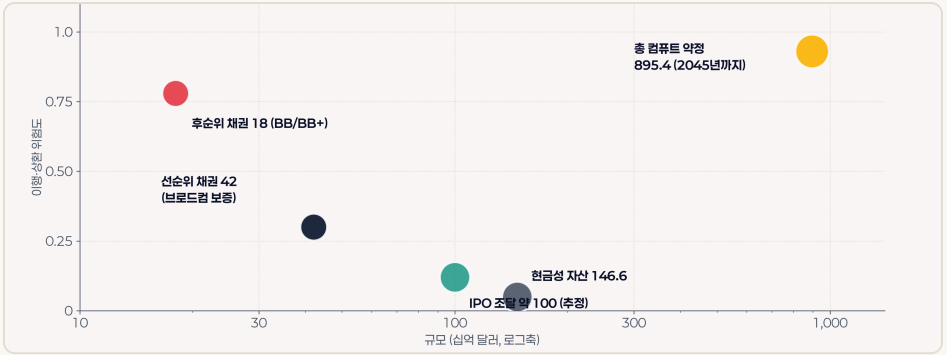
자료: WSJ·야후파이낸스·로이터 종합. 11-07~11-13 주간 등락률(종가 기준)

구분	수치	의미
반도체 62개 종목	수요일 종가~금요일 −6,500억$	구간 수익률은 지수보다 종목에서 먼저 무너졌다
상승 종목 수	62개 중 3개	분산이 아니라 선별 매도
반도체지수(SOX)	주간 약 +8%	주 초반 급등이 주 후반 하락을 상쇄
엔비디아	주간 −13%, 6주 연속	2012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
대안 수혜	AMD +19%, 마이크론 +13%, 인텔 +6%	갸웃할 필요 없이 같은 자금이 옮겨갔다
네오클라우드	코어위브 +15%(수주잔고 1,325억$)	수요 논쟁과 조달 논쟁이 분리

시장 구조 **지수가 오른 주에 종목 62개가 무너졌다면, 그 시장은 지수를 사는 시장이 아니라 회사를 고르는 시장이다**

IV. FT: 앤트로픽의 첫 공모, 시장이 먼저 매긴 것은 주가가 아니라 신용등급이었다

컴퓨트 약정 8,954억 달러·후순위 채권 BB — 투자등급 미확보 가능성이 공모의 첫 변수



자료: FT·Fortune·블룸버그 보도 종합(2026-10~11). 공모 서류상 약정 8,954억 달러, 현금성 자산 1,466억 달러

신용 회계의 핵심: 등급

앤트로픽은 나스닥 상장(티커 ANT)을 앞두고 있습니다. FT는 블랙스톤이 투자자들에게 "상장 직후 투자등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칩 구매를 위해 조달한 630억 달러 딜(노스스타)에서 선순위 420억 달러는 브로드컴이 보증하지만, 후순위 180억 달러는 BB/BB+ 등급입니다. 공모 서류상 컴퓨트 약정은 2045년까지 8,954억 달러, 9월말 현금성 자산은 1,466억 달러입니다.

왜 창업가가 이 등급을 봐야 하나

신용등급은 그 회사의 자금 비용이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논리가 국내 AI 스타트업에도 적용됩니다 — 매출 성장률이 아니라 **약정 이행 능력**이 등급을 만들고, 등급이 조달 비용을 만들고, 조달 비용이 2028년의 경쟁력을 만듭니다.

신용의 순서 AI의 첫 공개 가격은 주가가 아니라 신용등급에서 먼저 정해진다. 매출의 배수보다 약정의 이행 가능성이 먼저 심사된다

V. FT·블룸버그: 네오클라우드의 두 회계 — 수주잔고와 이자비용

코어위브 매출 +168%, 수주잔고 1,325억 달러, 총부채 469억 달러, 일부 채권 16%대

항목	코어위브 3분기	의미	시사점
매출	36.6억$(+168%)	컨센서스 35.5억$ 상회	수요 논쟁은 일단 종결
수주잔고	1,325억$(6월 1,040억$)	계약 기반 성장	잔고는 매출이 아니라 계약
총부채	469억$	이자비용 8.46억$/분기	영업이익 2.07억$의 네 배
연간 CapEx	370억~390억$	3분기만 145억$	조달 환경에 민감
회사채 금리	일부 16%대	모회사 무담보 발행 중단	자산담보·선수금으로 대체
계약 전력	4.6GW(가동 1.7GW)	연말 1.85GW 목표	전력이 성장의 상한
2028 상반기	조정 기준 흑자 전환 목표	회사 자체 가이던스	금리 가정에 민감한 목표

두 개의 회계를 분리하라

수주잔고는 "팔았다"는 증거이고, 이자비용은 "빌렸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같은 회사 안에서 동시에 커질 때입니다. 매출이 늘수록 설비가 필요하고, 설비가 늘수록 부채가 늘고, 부채가 늘수록 금리에 민감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안전한 기업은 성장률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 **계약에 조달 조건을 묶어둔 회사**입니다.

국내 적용

매출채권 담보 대출, 고객 선수금, 공급사 보증은 국내에서도 흔한 구조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재협상됩니다. 계약서에 지수연동·환율조정 조항이 있는지 이번 주에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VI. 블룸버그: 전기가 정치가 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원가표가 바뀌었다

미드텀 이후 그리드 비용 전가 규정,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조달 선언, IPO 문턱 상승

매체·사안	확인된 사실	원가 경로	국내 영향
블룸버그 (11-14)	미드텀 이후 데이터센터 전력비용을 기술기업에 전가하는 규정이 힘을 받을 전망. 오하이오~텍사스에서 규제 성향 후보 당선	입지 비용·허가 지연	전력기기·변압기·냉각 수출 일정
블룸버그 (11-11)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고객이 우리 성장 비용을 내지 않게 하겠다", 올해 1,170억 달러 컴퓨팅 용량 자체 조달	자체 발전·전력계약 비용	장기 전력계약 시장 확대
블룸버그 (11-05)	데이터센터 IPO 문턱 상승. 네오클라우드 주가 급락, 텍사스 주지사 선거 결과가 입지 계산을 변경	자본조달 비용	관련 ETF·수출주 변동성
WSJ (11-14)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장애(아웃룩·팀즈) 진정. 지수 내 방어 역할	운영 리스크	클라우드 의존 서비스의 대체 경로 점검

전기가 정치가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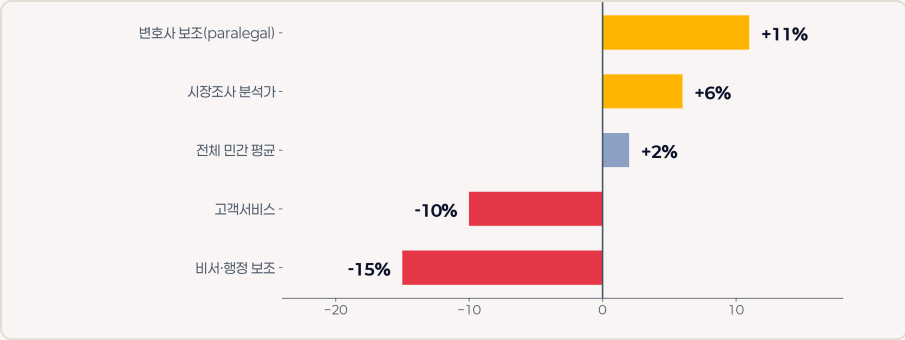
데이터센터의 원가는 세 덩어리입니다. 칩(감가상각), 전기(운영), 자본(이자). 지난 3년 동안 세 덩어리 중 가장 빨리 오른 것은 자본이었지만,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요금이 정치 의제가 되면 허가 일정이 곧 투자 일정이 되고, 허가가 늦어지면 감가상각 기간이 늘어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블룸버그가 "전력이 AI의 다음 병목"이라고 반복해서 쓰는 이유입니다.

한국 수출 기업의 캘린더

변압기·차단기·냉각·HVDC 장비의 수주는 미국 지방정부의 허가와 그리드 접속 대기열에 묶여 있습니다. 2027년 매출 계획을 세울 때 "데이터센터 허가 지연 6개월"을 기본 가정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VII. The Economist: AI는 일자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직무의 순서를 바꿨다

AI 관련 감원 월 1.6만 건 vs AI 창출 약 100만 개 — 총량은 늘고 반복 과업이 먼저 줄었다



자료: The Economist(2026-11-12) 인용 미 노동통계국·링크드인·챌린저 자료

매체의 결론: 일자리 재앙은 연기됐다

영국 주간지는 AI 관련 감원이 월 평균 1.6만 건으로 전체 감원(월 약 170만 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AI가 만든 일자리는 약 100만 개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연 환산 750억 달러 이상으로 1년 전보다 60% 늘었고, 전기·냉각·그리드·설치 인력 수요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 변호사 보조 +11%, 시장조사 분석 +6%, 고객서비스 −10%, 비서·행정 −15%.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

한국의 10월 고용은 총량 +13.9만, 청년 −19.6만(48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미국과 같은 모양입니다. 신입이 들어오던 문이 좁아지고, 검증된 실무 역량을 요구하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서 채용 예산을 교육·검증 예산으로 옮기는 결정이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VIII. McKinsey: 개인 생산성 80%와 EBIT 37% 사이의 간격은 설계다

2026년 조사 — 고성과 기업 6%만이 워크플로를 재설계했다. 도구가 아니라 조정표의 문제

McKinsey 진단	수치	원인	해법
개인이 느끼는 생산성 향상	80%	도구 보급은 빠름	—
EBIT에 긍정적 영향	37%	워크플로 재설계 부재	업무 흐름을 결과 단위로 재구성
고성과 기업 비율	6%	재설계를 동반한 소수	워크플로 재설계 기업의 3/4이 고성과
재창조 단계 도달	11%	역할·운영모델 미변경	조정표(orchestration chart) 작성
조정 역할 증가	라인 역할의 1.5~2.0배	조직 복잡도 증가	에이전트가 조정을 흡수
팀 구성 변화 사례	8~10인 팀 → 4~6인 + 에이전트	인간-에이전트 혼합	인계 지점 제거

맥킨지의 처방: 미션 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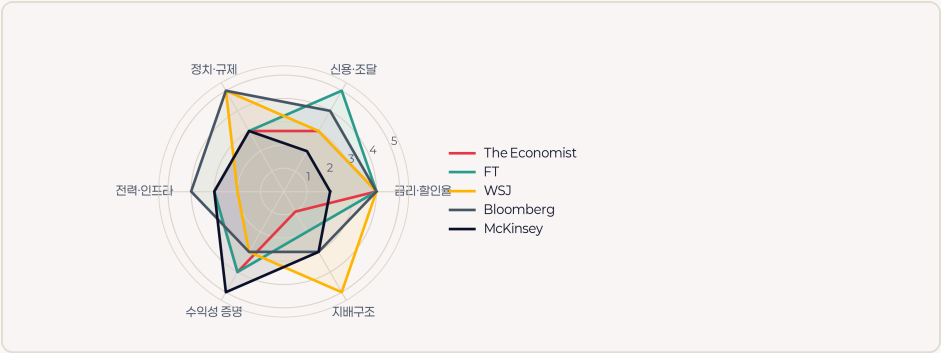
10월 5일 아티클과 11월 10일 아티클은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기업은 도구를 사는 단계에서 **결과 단위로 일을 재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단일 책임자와 "에이전틱 미션 팩토리"라 부르는 실행 조직이 필요합니다. 미션은 대출 승인, 고객 문의 1회 해결, 청구 누수 감소처럼 결과로 정의되고, 통제·평가·권한·생애주기가 워크플로 안에 내장됩니다.

창업가에게 유용한 이유

같은 논리를 10명 회사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 ①매출이 나는 업무를 결과 단위로 쪼갠다 ②각 단계에 사람과 에이전트를 배치하고 인계 지점을 지운다 ③권한과 승인자를 문서로 정한다 ④측정 지표를 "사용량"이 아니라 "결과 단위 처리 시간"으로 바꾼다. 이 네 단계가 없으면 AI 도입은 개인 생산성 향상으로 끝납니다(80% vs 37%).

IX. 교차 검증: 여섯 매체가 합의한 세 가지와 갈린 두 가지

수요·금리·정치는 합의, 신용 경로와 규제 강도는 이견 — 판단은 이견 쪽에 여유를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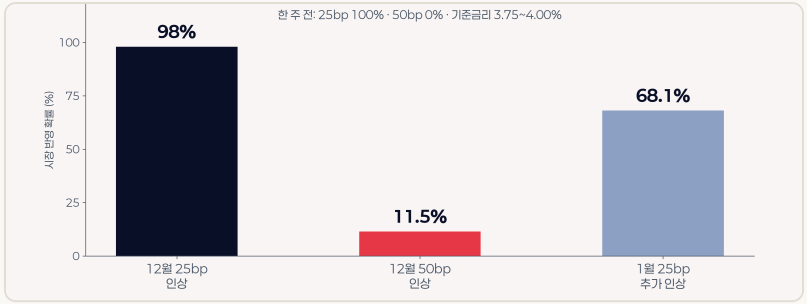


자료: 6대 매체 이번 주 논조를 콘데리 연구실이 5점 척도로 정리(1=낮음, 5=높음). 편집상 평가이며 매체의 공식 입장이 아님

쟁점	합의	이견	한국 기업의 판단
AI 수요의 지속성	2027년까지는 계약으로 확인됨	2028년 이후 불확실(FT·블룸버그)	2028년 매출은 계약서 기준으로만 계획
금융 시스템 위험	대형주 자기자본 중심이라 제한적	네오클라우드·사모크레딧 경로 미검증(FT)	거래처의 조달 구조를 신용조회 항목에 추가
가장 확실한 변수	정치·규제(전력·수출통제·조사)	규제 강도와 시점은 불확실	허가 지연 6개월을 기본 가정
조직의 준비도	도구 보급 ≠ 성과(맥킨지)	측정 방법론은 이견	결과 단위 처리 시간으로 KPI 변경
가격의 방향	금리 상방(전 매체)	속도는 이견(12월 25bp vs 50bp)	5.30% 스트레스 테스트

X. 한국 기업·창업가를 위한 여섯 개의 축

수요의 질·조달·전력·노동·조직·지배구조 — 매체별 신호를 2027년 실행 항목으로 번역



지료: CME FedWatch·Kalshi·Polymarket 및 WSJ·블룸버그 보도(2026-11-14)

전략 축	6매체 신호	2027년 실행	측정 지표
수요의 질	계약·잔고 중심 재평가	수주잔고와 매출 인식을 분리 보고	계약 대비 매출 전환율
조달	금리 상방 + 등급 리스크	자산담보·선수금 구조 점검, 5.30% 가정	이자보상배율
전력·입지	정치가 원가로 전환	전력 계약 조건·허가 일정 계약서에 반영	가동 개시 지연일
노동	직무 이동, 신입 축소	교육·검증 예산 신설	신입 대비 검증 인력 비율
조직	도구가 아니라 설계	결과 단위 워크플로 재설계	결과 단위 처리 시간
지배구조	핵심인물 리스크	이중 서명·승계·승인 기록	승인 로그 완비율

옴니버스 결론 여섯 매체의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2027년의 경쟁력은 성장률이 아니라 계약의 질, 조달의 구조, 조직의 설계에서 나온다

XI. 관찰 캘린더: 다음 여섯 시점

실적·정상회담·상장·금리·물가·고용 — 각 시점에서 확인할 것과 미리 준비할 것

시점	이벤트	무엇을 볼 것인가	대비
11-17(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총마진 74% 가이던스, 4분기 가이던스(컨센서스 약 1,247억$)	메모리·장비 발주 계획 3안
11-18~19	APEC(선전) 계열 미·중 정상회담	무역합의 이행, 희토류·농산물. 수출통제는 의제 제외	관세 휴전 연장 여부 확인
11월 중	앤트로픽 상장(ANT) 로드쇼	공모 밸류에이션과 신용등급	AI 스타트업 밸류 기준선
12-09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5bp 확정, 50bp 확률 11%, 점도표	차입 만기 재설계
12-10	미 11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0.3% 고착 여부	1월 인상 확률(현재 68%) 재조정
12-11	한국 11월 고용동향	청년 고용률 두 달 연속 반등 여부	채용·교육 예산 확정

이번 주에 읽을 세 개의 숫자

3.6%(AI 투자 비중) · 0.3%(미국 직접 노출) · 6%(하이퍼스케일러 부채 비중). 이 세 숫자가 붕괴의 크기를 정하고, 우리에게는 매출 노출표·조달 만기표·계약 조건표로 번역됩니다.

편집 후기

여섯 매체 중 어느 것도 "AI가 끝났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공통된 경고는 "자금의 가격이 바뀌면 사업의 순서가 바뀐다"였습니다. 옴니버스의 역할은 이 합의를 한국어 실행 항목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면책 본 자료는 공개 보도를 교차 정리한 분석으로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매체별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nglish Summary / 국문 요약의 영문판

Five ledgers, one week: capex, credit, power, labour and governance

Executive Summary (English)

Five media ledgers describe the same week differently. The Economist (14 November) argues that an AI crash is likely but a financial cataclysm is not: AI investment is projected to average 3.6% of US GDP between 2025 and 2032, the ten most AI-exposed stocks are close to 40% of the S&P 500, and equities are 38% of household net worth, yet direct exposure of the US economy is only about 0.3% of GDP because most spending goes into imported chips. Hyperscaler debt and leases are about 6% of market value. The Wall Street Journal frames the week as a governance question: after the chief executive resigned on 12 November, Nvidia named its chief financial officer interim CEO and appointed the first board chair in its history, while the stock fell about 13% for a sixth consecutive weekly decline. Between Wednesday and Friday a basket of 62 US-listed chip stocks lost more than $650 billion and only three rose.

Credit, power and organisation

The Financial Times reports that Blackstone has told investors Anthropic may not receive an investment-grade rating immediately after its IPO; senior debt in the $63 billion Project North Star financing is guaranteed by Broadcom, while $18 billion of junior debt is rated BB/BB+. Bloomberg reports that a Democratic sweep raises grid-cost pressure on data-centre operators, that Microsoft will spend $117 billion on computing capacity this year and intends to pay its own way on power, and that data-centre IPOs face a higher bar. McKinsey finds that 80% of respondents report individual productivity gains from AI but only 37% report positive EBIT impact and just 6% qualify as high performers; three quarters of those redesigned workflows, against a quarter of others.

3.6% / 0.3%
AI investment as a share of GDP versus direct US economic exposure

−13%
Nvidia's weekly decline, its sixth consecutive and longest since 2012

BB/BB+
Rating on the junior debt financing Anthropic's compute

80% / 37% / 6%
Individual productivity, EBIT impact and high-performer shares in McKinsey's survey

One line **No medium wrote that AI is over. All of them wrote that when the price of money changes, the order of business changes**

맺음: 다섯 개의 장부, 하나의 문장

조달의 가격이 바뀌면 사업의 순서가 바뀐다 — 2027년 예산은 계약에서 시작한다

이번 호가 확인한 것

여섯 매체의 이번 주 분석은 서로 다른 장부를 쓰지만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AI 붐은 아직 자기자본으로 조달됐고, 따라서 붕괴의 1차 경로는 부채가 아니라 주가와 발주서다.** 그 붕괴가 아시아의 공급망과 신용 시장에 도착하는 시점은 미국의 금리 발표일이 아니라 고객의 다음 분기 발주서와 조달 조건 변경 통지서입니다.

이번 호가 확인하지 못한 것

앤트로픽의 공모 가격과 최종 신용등급, 엔비디아의 4분기 주문잔고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매체 논조의 5점 척도 평가는 콘데리 연구실의 편집상 정리이며 매체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 주말 휴장으로 모든 지수 수치는 11-13 종가입니다.

매체	핵심 주장	근거	반증 조건
The Economist	붕괴 가능, 재앙 아님	GDP 3.6% vs 노출 0.3%, 부채 6%	사모크레딧 손실 확대
WSJ	지배구조가 프리미엄을 결정	사임 후 −13%, 첫 이사회 의장	후임 CEO의 주문잔고 유지
FT	신용이 먼저 재평가	노스스타 630억$, BB/BB+	투자등급 획득
Bloomberg	전력·정치가 원가	그리드 비용 전가, IPO 문턱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
McKinsey	설계가 성과를 가른다	80/37/6%, 재창조 11%	재설계 기업의 EBIT 개선 폭
콘데리	청구서는 아시아 매출로	외국인 −5,475억, 코어위브 16%	국내 수주 잔고 유지

발행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 문의 contact@conderi.com | 본 자료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